

기관돋보기 | 공동생활가정 사랑이네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

공동생활가정 사랑이네는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5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남성 이용인 3인, 사회재활교사 1인, 비상근원장 1인으로 구성된 작은 공동생활가정이다.

사랑이네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매월 '사랑의 국수 나눔터' 봉사 및 '사랑이 땀방울' 제과제빵 교실을 통해 이용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화합과 연대감을 더욱 높이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랑이네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지난해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도에 우수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사랑이네 이용인들이 용두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진상 원장은 "사랑이네 이용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생활해 자립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의 모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예니 사회재활교사는 "이용인들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특별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보다 많은 이용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몰모텔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동생활가정 사랑이네는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잡이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화합과 연대감 상승 기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한 공동생활가정 사랑이네(원장 김진상)는 이용인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매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화합과 이해가 가득한 작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랑이네는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남성 이용인 3명과 사회재활교사 1명, 비상근원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된 지 25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로서,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 덕에 지역 내에서는 누구나 사랑이네를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사랑이네의 사업을 소개하자면 이용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With 적십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매월 1회 '사랑의 국수 나눔터' 봉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이용인들은 낯가림이 있었고, 여러 면에서 서투른 모습을 보였지만, 매회 참여할 수록 조금씩 능숙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현재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숙함을 발휘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은 자신감을 얻고, 비장애인 분들과도 친근하게 소통하며 사회 적응능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생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봉양읍에서 다양한 활동과 지역 축제에 적극 참여해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주민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이 땀방울 우리동네' 제과제빵 교실은 3개월 동안 이웃과 함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협력해 공모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과 함께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평소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생산된 제과빵을 서로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으로써, 주민들과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욱 당당하게 나설 수



여가프로그램으로 휴지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사랑의 국수 나눔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과산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날 29일 제25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북사회복지대회' 개최

충청북도지사 표창 등 유공자 57명 포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와 과산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은목)가 공동 주관하고, 충청북도와 자연특별시 과산군이 후원하는 제25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가 지난달 29일 과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든든한 복지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송인현 과산군수, 김낙영 과산군의회 의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 400여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최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사

회복지비전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지사 표창(20명),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12명), 과산군수 표창(9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12명), 미래복지개발원 이사장 표창(4명)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아동권리 체험활동, 청소년 전화 1388 홍보, 지역자활센터 생산품 홍보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홍보부스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가구' 확대

수혜 범위 45만명→81만명... 도민 절반 이상 혜택

충북도는 이달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추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제도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대상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보건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난 11일 도의회 4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일인 27일부터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른 혜택 대상은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 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개인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등은 목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주게 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과교정, 암, 산부인과, 안과 등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 247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신청자는 지난 11월 기준 937명(24억3900만원)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

'올바른 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등급대행서비스

청원구 울량로 47 울량2차 LH 2단지아파트 204호 TEL. 043)213-3356

청주시, 가경국민체육센터 개관

수영장·배드민턴·탁구·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청주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해 온 가경국민체육센터를 지난달 28일 개관하고 9월부터 정식으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오전 진행된 개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설계·시공업체 관계자, 가경동 주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144억원이 투입된 가경국민체육센터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공사를 진행해 2024년 4월에 준공했다.

부지면적은 2000㎡, 연면적은 3200㎡ 규모이며, 배드민턴

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수영장(25m, 6레인), 라인댄스·요가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운영은 도심내 수영장 운영경험이 많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에서 맡는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강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가경국민체육센터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및 시설 개선 건의를 접수했다.

결과를 반영해 9월 3일부터 수영 초급반 8개, 라인댄스 등



가경국민체육센터 전경.

강습 프로그램을 19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운영팀(☎043-270-8533)으로 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가 지향하는 ‘꿀잼도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한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청주가 스포츠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경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2024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38개 기관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협약

진천군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겨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부 행사로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챌린지 영상 상영과 생명 존중

안심마음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백석대학교 최명민 교수를 초빙해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 ‘고립에서, 연결로!’라는 주제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음 업무협약식에는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6개 영역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38개 기관의 기관장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고위험군 발굴·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

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5개 분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자살 예방의 날 행사와 생명 존중 안심마음 업무협약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군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 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지난 6일 '도담센터 공공빨래방 개소식'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들어갔다.

단양군, '도담센터 공공빨래방' 개소

취약계층 무상 빨래 서비스 제공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와 총주담지사는 지난 6일 단양군 적성면 현여울길역 다목적회관에서 '도담센터' 공공빨래방 개소식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들어갔다.

'공공빨래방 사업'은 총주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형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춘 빨래방을 조성해 취약계층에게 무

상 이불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군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빨래(이불) 수거와 배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하고 정리수납 전문가가 각 가구를 방문해 정리까지 대행해 준다.

오송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은 “도담센터 공공

빨래방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근 군수는 “한국수자원공

사와의 뜻 깊은 협약으로 단양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된 이웃 없는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충주시, 1대1 맞춤형 돌봄 제공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시

충주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극심한 도전 행동(자해·타해)을 하거나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을 지녀,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대상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 환

경에 맞춰 1대1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제공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주간 그룹 1대1 돌봄과 주간 개별 1대1 돌봄으로 나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간 14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모를 통해 2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원활한 서비

스 제공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쳤다.

또한, 이들 수행기관은 전문인력을 통해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신체·예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외부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천시 교육 복지인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를 지난 12일 개관했다.

제천시,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 개관

다양한 교육·문화행사로 삶의 질 향상

제천시가 교육 복지인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를 지난 12일 개관했다.

기존 영천동 '평생학습관'은 건물 노후화가 심해 안전성이 문제가 됐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출범한 '청년센터'는 입주할 장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두 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를 기획했고 그동안 비어 있던 옛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도심 속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 공동 입주했으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시장 등 관내·외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는 이번에 개관하는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가 뛰어난 접근성과 전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중

심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도심 상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규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교육·문화행사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개관을 시작한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대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사업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평생학습관은 해당 건물(독순로 65) 1~3층, 청년센터는 4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재단은 1층이다.

음성군, 긴급돌봄 서비스 '최대 30일 돌봄 지원'

19세 이상 성인 대상, 가사·재가돌봄·이동지원

음성군은 위기상황 발생시 기존 서비스로 돌봄받기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 돌봄서비스는 신청 후 결정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질병·부상·돌봄부재로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등)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사지원, 재가돌봄, 이동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 발생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호현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견,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유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유가공류	햇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신선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7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괴산군, 2030 인구정책 비전 발표

인구 4만명 목표, 3대 전략 추진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괴산군이 '군민 4만명 회복'을 목표로 정한 인구정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3만6023명(8월 말 기준)인 인구를 2030년까지 4만명으로 끌어올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인데, 사업명은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연간 출생아수 100명 이상 회복, 인구 순유입 4000명 달성을 핵심목표로 잡았다.

3대 전략, 9개 과제, 100

대 세부사업을 펼칠 계획이고 이 기간에 투입할 추정예산은 2604억원이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으뜸 괴산'으로 분류한 결혼장려, 임신·출산 지원 등 58개 사업에 1010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괴산사랑 정착장려금 2500만원을 지원하고, 군이 공급·매입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임대료 격정 없이 살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2000만원)와 둘째아(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산후조리비(150만원)도 지원한다.

관내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연 100만원)은 계속 시행하고 도내에선 최초로 어린이 행복수당(연 60만원)도 도입한다.

송인현 군수는 "결혼에서 자녀 양육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2억7000만원 규모의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응정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모두가 살고 싶은 정정

괴산'으로 분류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에는 277억원을 투자하고, '방방곡곡 사람이 넘치는 행복 괴산' 분야에선 1304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인구 순유입 4000명 이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괴산군은 '괴산 인구늘리기 법군민 추진협의회'도 만들어 민간 차원의 참여도 끌어낼 계획이다.

마을별로 '숨은 인구'를 발굴하고 주시 이전 독려활동을 벌이는게 이 단체의 역할이다.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단계적 확대

보은군이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조례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던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일원화하고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군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 요금 월 5㎡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정 부여, 학생 아르바이트 우선 선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달 27일 조례를 공포한 뒤 관련 조례 개정예에 착수해 2025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각종 증명명 수수료와 보건소 진료비 감면, 여성회관·문화누리카운 시설 이용료 감면,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진수 보은군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 발굴해 양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 치매 환자 AI 돌봄 로봇 50대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업무협약

보은군은 치매 환자나 홀몸노인 가정에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로봇 '효돌이·효순이' 50대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로봇 지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해주었으며,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로봇은 챗 GPT를 탑재한 어린이 모습을 한 분제 인형으로, 머리카락 만지면 다양하게 반응한다.

노인과 쌍방향 대화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거나 식사·기상·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응급상황을 24시간 관찰하면서 치매 예방을 위해 간단한 퀴즈도 낸다.

군은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 위주로 이 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홍준란 군 보건소장은 "차세대 돌



보은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로봇 '효돌이·효순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봄 로봇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홀몸노인들이 가정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동군·영동시니어클럽, '녹원카페' 개소식

25명 전문바리스타 교육... 일자리 창출

영동군과 영동시니어클럽(관장 이종숙)이 '녹원 카페'를 개소했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영동읍 영산로 42에 위치한 '녹원 카페'는 '2024년 노인 일자리 시정형 사업단'의 하나로, 영동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게 된다.

영동시니어클럽은 지난 5월부터 사업비 4500만원(도비 1350만원·군비 315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집기 구입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영동중앙로터리클럽의 지원금 4500만원으로 25

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완료했다.

영동시니어클럽과 영동중앙로터리클럽은 지난 1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카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직접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커피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같은 서비스업의 기본적인 역량도 함양, 고객들에게 품질 높은 커피와



영동군과 영동시니어클럽이 녹원카페 개소식을 개최했다.

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노인들이 직접 카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도 보람찬 일자리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동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이 경제

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시니어클럽(☎043-745-6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20회 충북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열려

'온기나눔으로 하나되는 충북! 자원봉사로 함께!'

중평군은 도내 자원봉사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제20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지난 5일 중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다.

'온기나눔으로 하나되는 충북! 자원봉사로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성식)가 주최하고 중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김남순)가 주관한 행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값진 구슬

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화합과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영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한결같이 자원봉사에 매진해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순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시군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다지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중평군은 제20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지난 5일 중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했다.

한편,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도내 각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자원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화합해 자원봉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옥천군, 공공급식 지역 친환경 쌀 공급 협약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



옥천군은 지난 10일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과 공공급식 친환경 쌀 공급 협약식을 진행했다.

옥천군은 지난 10일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원장 강희권)과 공공급식 친환경 쌀 공급 협약식을 진행했다.

군과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우수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지역 친환경 쌀을 옥천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강희권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친환경 쌀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군수는 "옥천성모병원,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이어 지역 친환경 쌀 소비 확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건강한 먹거리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지역 쌀 판로개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

충북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2곳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국에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충청북도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은락),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이 디지털 배움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기술

의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2020년부터 디지털 배움터 운영하고 키오스크, 스마트 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4년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287만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한 바,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기존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상시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고, 디지털 제품의 직접적인 체험·실습 부족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방식 및 교육 환경 등을 개편하면서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배움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전국에 36개 지정해 키오스크 및 병원·금융 앱 활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상시 제공한다. 또한 언제든지 찾아와서 스마트폰 이용법 등에 대해 일대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와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한다. 민원 발급, 음식 주문·결제, 교통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키오스크·앱을 실습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 5종도 개발·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자료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고 생성형 AI 등 첨단 디지털의 활용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배움터 콜센터(☎1800-0096)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일부터 시작

6개월~13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해를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1.1.1~20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20일에 2회 접종 대

상(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일한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의 지참이 필요하다.

충북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한국병원 선정

중증 응급환자 치료 거점센터 14개소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

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를 지정했다. 충청북도는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신청기관이 없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전남은 미지정 됐으며 자세한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

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안 1조8163억원 편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 인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약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용을 상향한다. 아이돌봄비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또한,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 인상한다. 신승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 전년 대비 3.2%p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2022년 4만6103건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은 2만 5739건으로 이중 미취학아동

(0~6세)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해당하

며,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빈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시행령에 빈소 관련 규정 부재... 정당한 편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월 29일 권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중증 지체장애인이었던 진정인은 "전통휠체어를 타고 A병원 장례식장 빈소로 진입하려

고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내부시설인 빈소와 관련해 세부기준이 없는 것에 주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받은 '정당한 편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기부 릴레이



청주내덕노인복지관과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공동주관으로 기부릴레이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모금 캠페인 출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힘써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김혜정)과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종)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선포식에는 강재동 내덕2동장을 비롯한 김영권

내덕2동통장협의회장, 나눔실천 이꿈이, 특별기부자, 청원구민들이 함께 모여 모금캠페인의 출범을 선포하고, 기부릴레이가 이어졌다.

청주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릴레이 선포식을 지난 13일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 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나눔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1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나눔으로 더 행복한 복지관”이라는 슬로건 하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캠페

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조성된 모금액은 청주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쓰여진다. 김혜정 관장은 “최근 대내외적 경기 불황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청주를 비롯한 충청북도가 기부와 나눔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기부릴레이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기부릴레이의 시작과 함께 내달 25일까지 기부물품을 판매하는 행복나눔장터와 일일바자회 등 다양한 기부행사를 진행하며, 참여방법은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홈페이지(www.ndsenior.or.kr) 또는 유선(☎ 043-216-98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시가족센터 교육관 ‘다음센터’ 개관

외국인 정착 지원 활성화
다문화체험·요리공간 등



제천시가족센터 교육관 ‘다음센터’ 전경.

제천시가족센터 교육관 ‘다음센터’가 지난 9일 개관식을 가졌다.

‘다음센터’ 건립 사업은 제천시가 외국인 정착 지원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했으며 1986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옛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한 이용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가 필요했다. 시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다음센터’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27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떠 이날 개관

했으며 총면적은 722.86㎡ 지상 3층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했다. 우선 1층에는 다문화체험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2층에는 교육실, 온라인교육실,

컴퓨터교육실, 육아정보 나눔터,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3층에는 요리교육장이 있는 교육 및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됐다. ‘다음센터’는 ‘다문화·다양한·다인종 사람들이 오는 공간’

이라는 의미로 제천시가족센터 교육관으로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가족 구성원들의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등이 참석해 다음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다문화가족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불편했는데 새 건물이라 깨끗하고 안전해 보인다”며 “특히 요리교육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가족 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센터의 교육관으로서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시민의 가족친화적 관계 향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농아인들 화합·교류의 장 마련

표창·감사패 수여

충북 농아인의 날 기념식 및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7일 제천 어울림 체육관에서 충북 11개 시·군 농아인 회원 및 임원,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농아인의 화합과 교류를 통한 농아인들의 재활 의식 고취 및 건전한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1부 기념식에서는 농아인

권리선언 낭독, 농아인 복지증진에 노력한 시민·종사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표창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교복 입고 및 추억의 사진관 등 체험활동과 다양한 경기로 이뤄진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려 11개 시·군 농아인 회원 모두가 즐겁고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농아인분들의 완전한



충북 농아인의 날 기념식 및 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7일 제천 어울림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지역사회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는 2박 3일간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2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복지부장관배 체육대회 입상

아동 사기진작·협동심 향상
계주·탁구 등 준우승 ‘쾌기’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원숙)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남도 목포 구제축구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충청북도과 충북아동복지협회 후원회(회장 이태희), 충청북도 축구협회(회장 강성덕)의 후원과 SKK축구교실(대표 이승훈), 나이스 탁구 동호회(회장 김진관

에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경기장 무료 제공 및 대한축구협회 2024년 ‘A’ license 3차 교육생 1대 1 축구 지도와 격려금을 지원했다.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기진작과 협동심 향상을 위해 개최된 체육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축구, 배드민턴, 탁구, 계주 4개 종목에 선수단과 아동·청소년 등 800여명의 정정향 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충북아동복지협회는 계주(중등부), 탁구(초등부), 배드민턴(초

등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배드민턴(중등부), 탁구(중등부)에서 공동 3위에 올랐으며, 축구(초등부)는 예선을 통과하여 8강에 오르는 등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권원숙 회장은 “전 종목 42명의 선수들이 지난 7월부터 훈련을 해왔고 원팀이 되어 무더위에 싸워가져 구슬땀을 흘린 결과”라며, “각 시설 관계자들과 종목별 감독 코치들의 열정적인 지도가 잘 어우러진 결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모든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보치아대회’ 호응

충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 개선 기여 호평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0일 수안보다목적체육관에서 ‘2024년 충북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보치아대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환)은 지난 10일 수안보다목적체육관에서 ‘2024년 충북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보치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북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증진,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 하자 열렸다.

이날 장애·비장애인 선수와 인솔자, 운영진, 자원봉사자 등 18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경기를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이승환 관장은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

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통합 환경이 조성되는 장애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했다”며 어울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단양노인복지관, 노인복지 힘쓴다

한전MCS와 업무협약 체결
사각지대 해소·안전망 구축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은 지난 13일 한전MCS 단양지점(지점장 이강춘)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발굴 및 지원,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강춘 지점장은 “단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지원할 기회가 되었으며, 양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어르



단양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지역사회 노인복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들께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발표

내년 예산안, 4대 중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강화

민생안정,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수혜자들을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들과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들을 수혜자별로 설명하여, 국민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민생사업들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6.42%, 141만원)이 인상되며, 최근 3년 인상폭(년498만원)은 지난정부(年235만원)의 2배 이상이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3만명을 신규 지원하고, 신규 수급자는 연간 28만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

* 자녀가 수급자에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 축소

주거급여는 그간 동결된 주택 수선비용을 5년만에 29%를 인상한다.

장학금·생활비 확대에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금 사각지대, 국가가 줄여 나간다.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 50만명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대학생(200만명)의 75% 수준까지 지원한다. 고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인원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기초·차상위)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은 지원 대상 중 ·고생에서 기초·차상위·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교(5~6학년)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대상 소득·자산·자립 패키지 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자활근로 확대와 함께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II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 생계·의료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I 지속 지원(월30만원, 1:3 매칭)

이외에도, 저금리(2%) 청년자립자금 4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소득 보장, 활력제고, 돌봄 강화 패키지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한다.

어르신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인구 10%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단가를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및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 응급호출기를 27만대에서 30만대로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입주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아울러 6만8000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일자리·소득 레벨업 달성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은퇴 걱정을 덜어준다.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 생애경력설계·전직스쿨 등 내일패키지를 확대하여 준비된 은퇴를 지원한다.

중장년 인턴제,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뿌리산업교육센터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3년간 지원

맞춤돌봄 제공, 일자리 확대, 일상 지원 조항을 통해 최종중 등 장애인 대상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지속 의료지원이 필요한 최종중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및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긴급돌봄센터(발달)를 신설한다.

* 기존 장애인 일반 거주시설 →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 전환

성장기 장애아동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원력을 상향한다.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12만명 확대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공공)를 확대한다.

장애인 개인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일부(20%)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주택유형별 공급장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계층별(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취약) 빈틈없는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근로자 이음센터 2배 수준 확대, 취약근로자 일자리 상향이동 등 근로자 이음센터가 노동약자를 원스톱 지원한다.

분쟁조정·특화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4개소 확대한다.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채부를 겪는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충하고, 생활안정 자금 용자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근로자가 안정적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심터와 교육을 통해 안전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일용직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상향하고, 노무제조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② 경제활력 확산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융지원 3중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담보증 공급, 대환대출 지속 지원) 지원 및 신용취약·경영예로 소상공인 용자를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키오스크·서비스형 SW 등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전용자금 신설 및 e커머스과 협업 지원한다.

이외에도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 및 폐업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폐업 수반 비용 지원 및 재취업·재창업 연계도 확대한다.

* 폐업자가 재취업 등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을 10%p 상향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직불 예산을 지원한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직불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20년) 이후 최초 인상하고 전락작물직불제 확대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하며, 친환경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도 강화한다.

또한, 농수산물 스마트화·청년농 육성·수출산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10ha이상)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해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를 추가 건립하며, 농수산물품 수출바우처 등을 확대하여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③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월 100만원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며, 부모 맞벌이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육아휴직시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월 20만원)

유치원 방향,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를 신설한다.

주책드림대출 출시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 전용 저리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다.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여 이자부담을 감소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로 저소득 청년에 대한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기여금 매칭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고립방지를 위해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골체계를 마련하고, 정서·심리치료와 자조모임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인문학, 문화예술을 통한 마음치유를 지원하여 디지털 과몰입, 고립·은둔 등 정서적 취약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한다.

청년 일일형 지원 인원을 약 6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내 일' 찾기를 지원한다.

기업의 경력·수시채용 선호에 따라 직무경험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중장기·프로젝트 중심 양질의 일일형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미취업 졸업생과 구직단념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쉬웠음' 청년이 노동시장에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굴·관리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자신감이 결여된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화훈련, 도약장려금, 기술연수(3~6개월)를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용 3중 패키지 신설한다.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뒷받침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센터, 응급헬기, 특수목적 음압급급차 확대 및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하고, 양성자치료가 등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야간·심야약국을 3개 확대 및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 병원을 2배 확대하고 주요 응급질환 지역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④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군 복무환경을 제공한다.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역 후 2000만원 수준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1인 1실 간부소속 제공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국민평형 관사 확충 및 2~4인실 병영생활관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존선·전투력 제고를 위한 개인 전투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실질적인 훈련 환경 및 전천후 체력단련 여건을 보장한다.

AI를 활용한 첨단 과학수사로 일상 속 마약·지능형 범죄를 근절한다.

가상자산,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마약을 원천차단하고, AI를 활용한 첨단수사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에 대처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청소년 야간의출금지 및 24시간 보호관찰을 확대한다.

아울러 2차 피해에 대비해 밀착 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역대 최고로 인상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천 86만원 지원(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주거급여 (서울기준)	교육급여 (고등재녀 1인 기준)
연 2,200 → 2,341만원	연 7 → 14만원 <small>*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원액 939만원 (25, 기초 1종)</small>	연 632 → 654만원	연 73 → 77만원

+ 4대 바우처 추가지원

신규 농산물 바우처	신규 에너지바우처	신규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4인가구)	동계 31.4만원 (평균) 하계 5.3만원 (평균)	연 13 → 14만원 (1인)	월 10 → 10.5만원 (1인)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자활성공금 및 희망저축계좌 수령

신규 자립성공 인센티브	신규 자활성공 지원	신규 자금지원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희망저축계좌 II 정부매칭 360 → 720만원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원 2.0% 고정금리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103→110만명 지원 최대 확대

신규 민간형 일자리	신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규 공익형 일자리
22.5 → 23.5만명 <small>세부 유형별 근무조건 상이</small>	15.1 → 17.1만명 <small>월 76.1만원(10개월)</small>	65.4 → 69.2만명 <small>월 29만 원(11개월)</small>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신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노인전문 평생교육바우처	신규 응급 호출기
20개소 추가	8천명, 연35만원	30만대 보급

일반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

신규 주거공간	신규 맞춤형 서비스
고령자 복지주택 연 1천호 → 3천호 <small>통합공공주택 1,000호 백밀주택 1,000호 노후공공주택 리모델링 1,000호</small>	복지주택 단지내 돌봄 복지관 4개소 <small>고령자 복지주택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강·여가·돌봄 서비스를 종합제공</small>

일지리를 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63 → 76만명으로 확대

신규 민간일자리	신규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공공일자리
고용장려금 63.3 → 75.6만명 (연 인원) <small>1인당 월 35~90만원 (외국고용률 초과 고용한 사업주 대상)</small>	취업성공패키지 1.3 → 1.4만명 <small>신규 취업계획 수립 → 직업 능력개발 향상 → 집중 취업 지원</small>	직접일자리 3.2 → 3.4만명 <small>복지일자리 1.9만개 일일형 1.2만개 특화일자리 0.3만개</small>

최종중장애인,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신규 최종중 발달장애인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최종중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범도입 (2개소)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도입 (8개소)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신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8개 → 17개 시도 210 → 410명	모바일로 편리하게 온·오프 라인 신청확인 가능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신규 양육비 선지급금	신규 아동양육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명)
연 240만원	연 252 → 연 276만원

위기가임신부가 출산한 아동,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

신규 임신부 상담기관	신규 긴급위탁보호비	신규 아동보호 절차
신소의 안전한 출산 지원, 출산-양육 정보제공	월 100만원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 가정-시설통합

보호시설에서 태어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신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신규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지원수당 연 480 → 연 600만원	자립지원수당 연 600만원

복지광장

가스안전이 곧 사회복지다

건강칼럼

‘내 몸의 보일러’
갑상선의 온도를 지켜주세요



김 일 우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기업이며, 가스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공공기관이자 준정부기관이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와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 그리고 전국 각지의 29개 지역본부·지사에서 약 1700여명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가스안전 검사와 점검, 교육·홍보, 연구와 인증, 진단, 사고조사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내 유일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본사를 경기도 시흥에서 충북 음성으로 옮기며, 본격적인 충북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리고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공사는 10년의 세월 동안 충북지역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며, 가스안전이 곧 사회복지라는 신념으로 가스안전관리와 지역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충청북도의 북부지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의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췄다. 그간 가스안전공사와 충북북부지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촘촘한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해 타이머폭 무료 보급사업과 LPG 시설개선사업을 적극 실천했고,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가스시설 긴급 복구와 이재민 돕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들을 찾아 사회공헌활동도 쉬없이 이어오고 있다. 가스안전이 곧 사회복지라는 명제를 가장 열심히 보여주는 사업이 타이머폭 무료 보급사업이라 할 수 있다. 타이머폭은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퓨즈콕)를 잠그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과열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은 가스안전장치이다. 예를 들어 혼자사는 어르신이나 굶공급이 끊긴다고 오랫동안 가스불을 켜두고, 깜

빡하는 경우에도 설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과열 화재를 피할 수 있다. 타이머폭 보급 사업은 2008년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뒤 2012년 위탁사업 도입, 2017년 협력사업 도입 등 꾸준히 확대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 간 전국 123만 가구에 타이머폭이 보급됐다. 공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예산을 위탁받거나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협력 사업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역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실제 사고예방 효과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인구는 2012년 577만 명에서 지난해 950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택 내 가스레인지 과열화재사고는 2012년 12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 또한, LPG 용기 사용가구 대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도 진행 중이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이 지난 2021년부터는 LPG 고무호스 사용 일반가구 전체로 확대됐다. LPG 용기 사용가구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외계층 및 서민층에게 자발적인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수혜자 부담을 줄였고, 지난해 3만 4033가구의 시설을 개선했다. 타이머폭 보급사업과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연락해 사업 설명 및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스안전마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충북으로 이전한 2013년부터 전국 55개 마을을 가스안전마을로 지정해 열악한 환경의 농촌지역의 촘촘한 가스안전망을 구축했다. 올해 6월에는 충북북부지사가 단양군 어상천면 돌다리마을을 가스안전마을로 지정해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 LPG 시설 개선, 타이머폭 보급과 농촌일손돕기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신속한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명절에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물품 지원을 하는 등 사회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임을 잊지 않고, 특히 충북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가스안전을 포함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탬 것이다.



이 예 주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내과장

갑상선은 우리 목 중 튀어나온 물렁뼈의 아래쪽 기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호르몬(티록신, 트리요오드티로닌 등)을 분비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심장 박동 수 조절, 에너지 소비와 같은 대사 작용에 직접 관여하며, 신체의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갑상선 기능 이상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이상증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갑상선이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잘 생성하지 못하거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이 원활히 되지 않고 온몸의 기능이 감소하여 추위를 잘 타게 되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며, 손과 발이 차갑고, 근육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며, 무기력증, 기억력 감퇴, 수면 무호흡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마치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보일러처럼,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고 저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갑상선이 과도하게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사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활발해져 몸에 열이 많아지고, 땀이 많이 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식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손이 떨리며, 대변의 횡수가 증가하고 설사를 동반할 수 있다. 마치 과열되어 끊임없이 작동하는 보일러와 같은 상태로, 신체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기능이상증이 있을 때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 예를 들어 해초류, 어패류, 달걀 등을 섭취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진단받은 초기 단계에서는 요오드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과도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 두부, 콩 등을 섭취하여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역시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다. 적정량이 아닌 필요 이상으로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오히려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더욱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요오드 섭취를 적정량으로 유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 양배추 등 채소나 과일을 자주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청년보다는 노년층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 질환은 초기 증상이 경미하여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컨디션 저하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고, 평소 갑상선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 한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갑상선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끝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증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 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

현장의 목소리



하 은 수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작년에 입사를 하고 첫 사업으로 “안녕, 새미(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의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여자 선정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며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던 모습과는 달리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내듯 털어놓는 분들이 많았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슬픔에 잠겨있는 어르신,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어르신, 아픈 자녀를 돌보면서 나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분까지 많은 분들이 각각의 사연으로 우울감을 호

소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드러나는 우울감 뒤에는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느껴졌다. 인터뷰 답변에는 “나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빠지고 우울해져서 뭐라도 해서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쏟아낸 인터뷰의 끝은 대부분 “바깥 텐데 시간을 뺏어 미안해요.”였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에게서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집에만 있으면 말 한마디를 안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 너무 싫어서 눈 뜨자마자 매일 복지관에 나온다.” 등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복지관에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인지선별검사와 우울감을 바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여 열 두명의 어르신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주일에 한 번, 1회기에 2시간씩 12회기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직접 진행하는 수업도 있어 어르신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마

소통에 대한 목마름

음에 매주 새로운 다과를 준비하고 수업 시작 전에 한 번씩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어르신들끼리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이름 맞추기 활동도 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질문으로 던져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종결을 앞둔 10회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배우고 연습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대접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배운 것들을 타인에게 알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성취감과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함이었다.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진행된 사후 인터뷰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사별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잘 웃지도 않던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웃게 되었어요.”, “잠을 자지 못해서 신경과 약을 두 개씩 먹었는데 이제는 약을 하나만 먹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신경 써주

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답변을 들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고 우울감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다. 많은 어르신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든 어르신과 깊이 소통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전하는 말과 관심, 작은 것들로 전하는 나의 진심을 어르신들은 다 느끼고 계셨다. 그 작은 진심들이 모여 어르신들이 기쁘고 기대하는 무언가가 생기고, 잠깐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다면 노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혼자 복지관에 와 우뚝하니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더라도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어르신들께 더 많은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직접적으로 어르신들께 관심을 표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르신들이 가진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충분히 채워지기를 바란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지 5년이 넘은 상태인데 전 남편은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연락조차 끊은 상태에서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인지 여려가지로 예민하고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흐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민법의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모가 자녀의 성과 본 허가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판단기준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우선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합니다.

다음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衡量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청구하는 사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 제공

[우양재단, 저소득 어르신 달걀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기관: 전국 사회복지기관(개인 신청 불가)
■ 지원 가능 기관 : 재가노인센터,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입소시설
■ 지원품목: 1인당 무항생제 달걀-1판(특란 30구)
■ 지원수량: 각 단체 별 100판 고정, 일괄 지급 (따라서 반드시 100명에 맞춰서 신청해주시기 바람)
■ 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 접수방법: 구글폼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간: 2024.10.4.(금)
■ 선정발표: 2024.10.11.(금)
■ 배송일정: 2024.10.17.(목)~31.(목) 순차 직배송
■ 참고: www.wooyang.org

[사랑의열매, 2024년 기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공고]
■ 신청자격: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기관·단체·시설 등(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경험있거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수행방식: 공모를 통한 비영리법인·기관·단체·시설 등 지원
■ 신청기간: ~2024.10.14.(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proposal.chest.or.kr)를 통한 접수
■ 사업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12월(1년)
■ 사업규모: 총 20억원 이내(기관별 1억원 이내) 단,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

[플랜코리아, 2024년 하반기 위기 아동 지원사업 '아동 의료지원']
■ 사업내용: 일반지원(생계비, 양육비, 교육비), 의료지원, 정서지원, 주거지원
■ 사업대상: 국내 거주 아동 중 위기상황에 따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 가정, 일반 저소득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미등록 아동 포함)
■ 신청기간: ~2024.12.31.(화)
■ 신청방법: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구비 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제출(사업신청 전, 유선협의)
■ 사업기간: 예산 범위 내 연중
■ 참고: www.bokji.net

[한국아동복지협회, 저소득 아동 품 스케치 자립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2000년생 ~ 2005년생까지의 자립준비청년
- 1순위: 대학 재학중인 자
- 2순위: 직업 훈련중인 자(3개월 이상)
- 3순위: 아르바이트 및 직장 재직 중인 자(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자립준비지원금 1인 300만원
■ 신청기간: ~2024.10.7.(월)까지 우편 접수
■ 참고: www.adongbokji.or.kr

[사랑의열매, 2024년 기획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배분협력기관 공모 안내]
■ 신청자격: 전국 단위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등
■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개보수 등,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보수 등, 개인 및 시설의 일회성 장비 보강 지원 등, 온·오프라인 등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플랫폼 지원 등
■ 신청기간: ~2024.10.18.(금)
■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proposal.chest.or.kr)를 통한 접수
■ 사업기간: 2024.12.~2025.11.(1년, 단기사업)
■ 사업예산: 총 80억원(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하트-하트재단,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지원대상: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 중위소득 150% 이내, 만 19세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한함
■ 지원내용: 전신마취 하 치과진료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치료비 입금 형식이 아닌, 서울대학교치과 병원을 통해 진료 지원 형식으로 진행
■ 지원기간: ~2024.12.31.(화),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 및 이메일 제출(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heart-heart.org

[밀알복지재단, 신장이식수술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내 저소득층 신장장애인
■ 신청기간: ~2024.12.13.(금)까지
■ 지원내용: 신장이식수술비(잔액 발생 시 공여자 수술비로 지원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0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외 저소득층: 400만원 한도
■ 지원시기 및 방법: 수술비 최종정산 후 1개월 이내 치료병원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신청서 등 작성 후 이메일 접수(miral9135@miral.org)
■ 참고: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헬렌켈러홀' 입소자 모집]
■ 모집대상 및 입소 조건: 동반인과 입소가 가능한 전국에 거주하는 시정각장애인 당사자(시정각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
■ 모집기간: 상시
■ 시설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휘경동 주공아파트 1차)
■ 이용료: 생활비 실비 부담
■ 입소기간: 14일
■ 입소 우선순위: 1순위-지방 거주 시정각장애인, 2순위-지방 거주 시정각장애 아동의 둔 부모, 3순위-수도권 거주 시정각장애인
■ 참고: www.miral.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34-0840
▶ 어르신 대상 스마트기기 안내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36-0111
▶ 사무업무 보조
관리센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845-7505

▶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사무보조 등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99-5732
▶ 초등학생 돌봄 및 학습지도
관리센터: 사랑의울타리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88-7414
▶ 어르신 스마트폰교실 보조
관리센터: 병력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648-3337

▶ 물리치료실 업무 보조
관리센터: 단양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421-71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무료급식 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나눔의 인연 봉우회(회장 채준병)는 지난 1. 8 일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사시사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채준병 회장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며 봉사활동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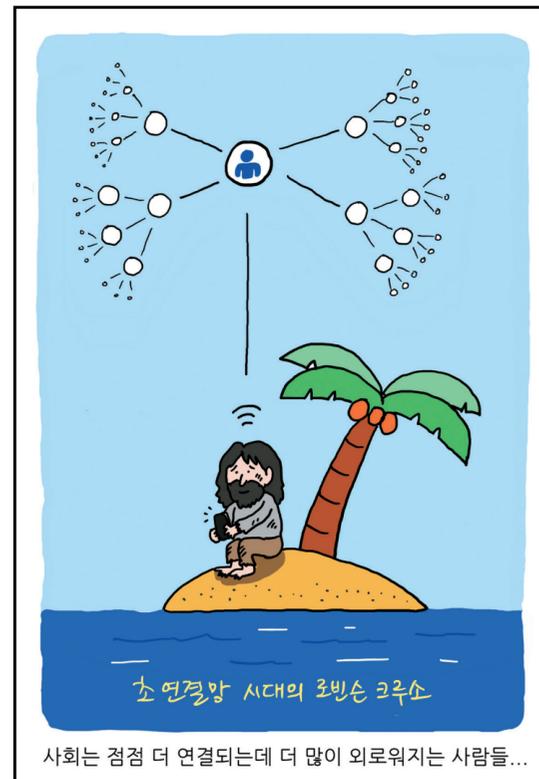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에서는 가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24. 9. 1. ~ 11. 30.)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가을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Infographic showing various safety hazards like power lines, children safety, and fire prevention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복지/만/평

외로움의 습격

이창신 www.bokmani.com



초연결망 시대의 로빈슨 크루소

사회는 점점 더 연결되는데 더 많이 외로워지는 사람들...